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불어불문학과 16)

▼ 현재의 직장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나요?

1.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연구한 양질의 텍스트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2. 세상이 나아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그렇기에 배울 것이 많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기회가 있는 곳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래 글을 읽는 것을 좋아했고 글을 쓰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았습니
다. 경제적 자유를 얻어 지속 가능한 미래지향적 도전을 위해 취업을 고려했습니다. 이윤
을 추구해야 하는 상업 출판사보다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자유로우며 훌륭한 교수님들의
텍스트를 책으로 엮어 내는 이곳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 해당 분야 취업을 위해 내가 준비한 것들, 또는 준비를 했다라면 도움이 되었겠다 싶은 것들을 말씀해주세요.

1. 글을 많이 읽고 썼습니다.
취업을 위해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취업에 큰 도움이 되었
습니다. 출판사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자격증 같은 것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다루던 경험을
토대로, 입사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받고 최종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 주세요.

좋은 책을 많이 읽을 것,
좋은 사람과 함께할 것,
좋은 곳에 오래 머무를 것,
좋은 것을 자주 보고 들을 것,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도전하고 덜 좌절할 것,
쓰러질 때마다 일어나는 법을 배울 것,
좋아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것.



시대에듀(국어국문학과 19)

▼ 현재의 직장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나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질 중 어떤 것에 가장 자신 있는지 고민했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직무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어요. 그 과정에서 재학생 시절, 전공 행사를 기회로 출판사에서 일하시는 졸업생 선배님과 했던 인터뷰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선배님께서 편집자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이나 편집자가 하는 일,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경험 등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역량, 강점과 비슷했어요.

선배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역량 중 저에게 부족한 점을 보완(자격증 취득, 대외활동 등)하여 입사 지원을 했고,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나의 능력이 어떤 기업이나 직무에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여러 매체를 통해 탐색해 보고,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보며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해당 분야 취업을 위해 내가 준비한 것들, 또는 준비를 했더라면 도움이 되었겠다 싶은 것들을 말씀해주세요.

대외활동을 여러 개 했습니다. 제가 가진 강점을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계발시키고 싶어서예요. 우선, 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우리말가꿈이, 여러 종류의 글을 써볼 수 있었던 행정안전부 소셜 미디어 기자단, 4.16재단 대학생 기자단, MBN Y포럼 서포터즈 등으로 활동했어요. 또, 인문인턴십이나 교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강좌 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여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력으로 적을 수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종이신문을 구독해 읽었던 것도 저의 말과 글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되었어요. 신문 읽기는 여러 모로 이점이 많은 습관이라 직장인이 된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어학 성적만을 위한 영어 공부를 했는데, 영어는 잘하면 잘할수록 도움이 되니 꼭 어학 성적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영어와 꾸준히 가까이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경험이 입사를 준비할 때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에 매몰되지 마시고, 마음이 시키는 일이 있다면 우선 해보세요. 모든 경험은 경험이라는 그 자체로 가치 있으니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는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 주세요.

모든 것을 과정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채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은 암담하고 막막합니다. 앞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을 감내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며 하루를 보내야 맞는 건지 정해져 있는 건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어떤 것을 잘했다거나 보완하라는 자세한 안내 없이 그저 ‘합격’ 혹은 ‘불합격’으로 평가받는 일이 반복되면 누구나 지치고 낙담해지기 마련입니다. 불합격이나 탈락이라는 일 하나하나를 결과라고 생각하면 일희일비하기 쉬워져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을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장인이 되기 전, 더 나은 사람으로 커가기 위해 하는 연습이나 단련의 일부라고요. 멀리서 바라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전공 교수님들께 조언을 구했던 것 같아요. 언제나 저를 반갑고 따스하게 사랑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전공 교수님들 덕분에 그 시기를 지혜롭게 지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사회에서 어리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어리실 테니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일에 마음껏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